

마을공동투약으로 쥐를 잡자

캠

페

인

쥐 피해 실태와 방제

홍

보

부

결실기에 있는 많은 농작물과 수확후 보관중인 각종 농산물에 쥐 피해가 극성스럽다.

우리가 맘호려 가꾼 많은 농산물이 쥐에 의해 많은량이 손실, 훼손될 경우 전체수확량의 감소는 물론 귀중한 식량을 쥐에게 빼앗긴다는 점에서 볼때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82년도 농수산부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쥐가 자그만치 43만 8천톤이나 되는 양곡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량은 국민 1천만명이 109일간이나 먹을 수 있는 엄청난양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쥐는 음식물을 더럽히고 전염병을 옮기는 등 쥐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일일히 열거할수 없을 만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억마리로 추정되는 쥐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많은 쥐를 단시일내에 잡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수시로 쥐잡기운동을 벌여 쥐의 서식밀도를 피해수준이하로 줄여나가야 하겠다.

정부에서도 매년 집쥐, 들쥐잡기 사업을 벌려 많은 쥐를 잡아주고 있으며 약효와 안전성을 갖춘 우수쥐약을 농가구입이 쉽고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협을

통하여 외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쥐의 생태, 피해 실태, 투약요령 등 효과적 인 구서 방법을 상세히 알아 본다.

쥐의 종류 및 생태

☆ 쥐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쥐의 종류는 12종이 알려져 있으나 주로 인간 생활 주변에서 많은 피해를 주는 종류로는 주로 민가와 부락 주변에 사는 주가성 쥐인 시궁쥐, 곰쥐, 생쥐와 야외경작지와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등줄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궁쥐」는 몸집이 가장 크고 가옥 내부, 하수구, 창고에서 서식해 나간다.

「곰쥐」는 얼른 보기에 시궁쥐와 비슷하나 체구가 약간 작고 날씬한 편이며 주로 건물 내부에서 서식한다. 특히 천정을 잘 기어오르 내리며 감귤을 즐겨 갇아 먹는다.

등줄쥐가 농촌에 피해 많이 쥐

「생쥐」는 10~20g 체중의 아주 작은 쥐로 몸집이 작아 많은 양을 먹어 치우지는 않지만 좁은 틈바구니를 빠져다니면서 책이

나 값비싼 모직물 등을 쏘아 버려 그 피해를 무시할 수 없다.

농촌지역의 경작지, 과수원, 산림지대에 서식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쥐는 등줄쥐가 대부분이다.

☆ 쥐의 번식 발육

설치동물에 속하는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듯이 쥐의 번식율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일반적으로 1년에 4~6회 즉 2~3개월마다 새끼를 낳으며 한번에 평균 9마리를 낳는다.

영국의 한 동물학자는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진다면 다음 주역은 쥐와 토끼류 일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할 정도로 막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겨울이나 늦여름에는 번식이 줄어들고 봄과 가을에 번식이 가장 왕성하다.

수시로 잡아야 밀도 감소되

대부분의 쥐는 1년이 채 못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막강한 번식력으로 은신처와 먹이가 풍부하고 환경이 적절할 때는 쥐의 밀도가 어느 한계까지 계속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쥐를 한 두 번만 잡고 만다면 원래 숫자로 금방 불어 나게 되므로

집안에 쥐가 성가시거나 농작물 피해가 예상될때마다 수시로 쥐를 잡아 주어야만 한다.

☆ 쥐의 활동과 먹이습성

요즈음 쥐들은 갈수록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 체중도 늘고 점차 지능도 발달하여 심지어는 우리인간이 “쥐”라고 말하는 소리도 알아 챌다고 한다.

시력이 매우 약하고 색맹이지만 길고 예민한 콧수염과 온몸에 나있는 경계모를 촉각으로 이용하여 벽구석이나 굴속등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왕래할 수 있다. 냄새를 잘 맡고 이물질을 쉽게 감별하며 음식물에 섞여있는 극미량의 화학물질도 판별해 낸다. 특히 먹고나서 고통스런 증상을 일으키는 급성쥐약을 아무리 잘 조제해 놓는다 해도 쉽게 눈치를 채고 입을 절대 대지 않는다.

급성쥐약은 기피경우 많아

쥐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물은 다 좋아하는 잡식성으로 특히 곡류를 좋아하고 신선한 육류, 생선, 과일류등을 좋아하며 먹이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는 가리지 않고 먹어 낸다.

그러므로 쥐먹이가 될만한 음식물등을 잘 보관하고 항상 생활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도 쥐방제에 도움이 된다.

쥐의 피해 실태

쥐가 우리인간 생활에 끼치는 피해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늘상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거나 무관심한 채로 지내고 있지만 쥐가 우리인간 생활에 입히는 피해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

☆ 쥐의 피해

유행성 출혈열등 질병을 매개

쥐가 입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즉 각종 질병매개는 우리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최근 농촌에서 주로 들쥐가 옮기던 「유행성출혈열」(일명 한국형 출혈열)이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집쥐도 이병을 옮긴다는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병은 고열, 오한증세를 보이다 심한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연구팀은 11월에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일부 농촌지역에 집단발생했던 괴질병은 들쥐오줌에 오염된 논바닥 흙과 논물에 새끼가 잠복해 있다가 피부를 통해 전염되는 출혈성 폐렴증세의 질병인 「렙토스피라 (Leptospira) 증」임이 보사부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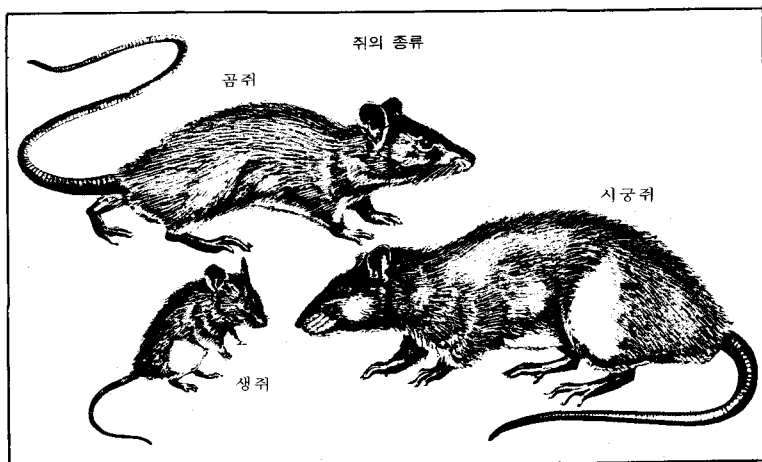
쥐가 옮길수 있는 질병으로는 「페스트」, 「장티부스」, 「발진티부스」, 「웨일즈병」, 쥐에 물릴경우 생기는 「서교열」 그리고 스피로헤타 (Spirochetes)균에 의해 「재귀열」이나 「매독」을 옮길 수도 있다.

스피로헤타균은 쥐의 오줌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사람이 먹을 경우 점막이나 피부접촉 또는 피부의 상처를 통해 쉽게

감염된다고 한다.

최근 유럽에서는 「톡소프라스마」라는 쥐가 옮기는 무서운 병균이 발견되었는데 이 병균은 뇌속에 딱딱한 석회질을 만들고 임산부가 감염되면 사산이나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탈모증, 간질병,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렇듯 쥐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유해동물이다. 그러면 우리생활 주변에서 입는 쥐피해를 알아보자. 배설물인 똥과 오줌으로 집안밖이 불결해지고 천정속을 몰려다니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며 항상 맑는 습성이 있어 옷이나 상자, 책등을 쓸아 못쓰게 만들기도 한다.



쥐는 어느곳이나 극성스럽지만 먹이가 풍부한 음식점에서는 하수구 등을 통하여 주방을 예사로 드나들면서 음식물과 조리대를 오염시키며 상가에서는 야채, 과일, 생선, 식료품 등을 축내고 더럽힌다.

정미소나 양곡창고에서의 피해도 크다. 먹어치우기도 하지만 가마니나 마대를 뚫어 많은 곡물의 손실을 가져오며 똥, 오줌, 털로 양곡을 오염시키는 것도 큰 골칫거리다.

쥐는 비단 곡물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물 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등 가축사료도 먹어치우며 양계장에서는 계란을 훔쳐 먹고 심지어는 병아리나 닭까지도 잡아먹을 정도로 무서운 존재이다.

전기합선 등으로 화재 유발

이밖에 쥐에 의한 재산피해도 엄청나다. 쥐는 일년에 3cm이상 자라는 알나 때문에 딱딱한 물질을 수시로 갉아야 한다. 이같은 생리현상 때문에 쥐는 나무, 콘크리트, 플라스틱은 물론 쇠붙이까지 갉아 낸다. 이같은 성질 때문에 전선, 가스파이프, 벽이나 방바닥 등을 마구 갉아 인간이 방심하는 사이에 화재나 가스누출에 의한 사고, 연탄가스

중독사고 등을 일으킨다.

이웃 일본에서는 매년 1천여건의 화재사고가 쥐에 의한 합선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도시화재의 약 25%가 쥐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창고에 쌓인 각종 원자재나 제품원료를 축내고 못쓰게만 든다.

이렇듯이 쥐는 밤낮없이 우리 생활주변을 맴돌며 우리 인간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 들쥐피해

우리는 매년 식량증산을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병충해 방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병충해에 못지 않게 무서운 것이 들쥐에 의한 농작물 피해다. 들쥐는 재배중인 작물을 직접해치거나, 수확 후 보관중에도 가해한다.

주로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곡류를 비롯하여 콩, 땅콩등의 두류도 피해가 심하고 고구마, 감자, 고추, 오이, 참외 등의 채소류와 인삼같은 특용작물 그 밖에 사과, 감귤 같은 과수까지도 피해를 줄 정도로 극성스럽다.

벼이삭 가해로 수확 어려워

벼는 유수형성기 전후와 출수

기 사이에 주로 피해가 심하다. 어린줄기를 갇아버리고 이삭이 나오면 단물을 빨아먹어 습격을 받은 벼포기는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결국 말라 죽는다.

콩은 꼬투리가 생기는 대로 잘라먹고 새로나온 순을 잘라버리며 옥수수는 알이 생기는 대로 옥수수대를 타고 올라가 모조리 갇아 먹는다. 채소류 및 과수는 과실을 갇아먹으며 뿌리나 줄기를 갇아서 심할 경우 고사되기도 한다. 작년 들쥐가 급성을 부릴 때 주민들간에 만나면 들쥐 피해를 묻는것이 인사처럼 되버렸던 적도 있었다.

들쥐 방제요령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들쥐를 없애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쥐약을 적기에 공동으로 투약해 주는 것이 최선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물을 수확하여 밭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수확물을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 쥐약선정 및 구입

단협서 구입하면 믿을 수 있어

쥐약을 구입할 때는 약효와 안전성을 갖춘 쥐약이어야 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제품을 구입해야만 한다. 시중에는 아직도 무허가쥐약 등이 여전히 나돌고 있어 구서 효과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어린이나 가축에 2차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쥐약 선정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쥐약의 종류로는 급성과 만성쥐약 그리고 급만성 쥐약이 있다.

「급성쥐약」은 대개 약을 먹은 후 48시간이내에 쥐가 죽게되며 값이 싸고 쥐가죽는 것을 바로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급성쥐약은 기피성이 높아져 쥐가 먹지 않으며, 독미끼 조제가 불편하고 맹독성으로 부주의할 경우 사람이나 가축에도 위험하다.

「만성쥐약」은 일명 「항혈액응고제」라고도 하며 쥐가 서서히 내출혈을 일으켜 3~10일 후에는 죽게 된다. 대체로 기호성이 좋고 저독성인 장점이 있는 반면 쥐가 많은 양을 먹어야 죽기 때문에 미끼비용이 많이 들고 투약이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반면에 「급만성쥐약」은 급성과 만성쥐약의 장점을 겸비한 쥐약으로서 만성쥐약의 결점인 다량섭식에 의한 치사를 보완.

소량(2~3그램) 섭식으로 높은 구서효과를 나타낸다. 근래 농촌에는 농용자재 뿐아니라 가전제품, 약품 등 일상용품까지 불량품이 나돌아 농민들이 속아 사거나 판매상인의 꼬임에 빠져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불량상품을 추방하고 믿을만한 상품을 구입하는 한가지 방법은 전국 읍, 면단위까지 있는 단위농협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단위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쥐약은 급만성형 항혈액응고제로 언제든지 구입이 편리하고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투약방법

쥐들은 대개 농가부근 150m 이내에 있는 농작물을 가해한다. 비의 경우 논둑근처로 많이 몰려서 피해를 주므로 논둑을 따라 일정한 간격(약 10~20m)으로 투약해 주되 특히 쥐구멍 근처나 쥐가 다닌 흔적을 찾아 쥐가 잘 다닐만한 곳에 놓아 주도록 한다. 작물이 피해를 받기 전에 투약해 주어야 하므로 조생벼는 출수기에 중·만생종벼는 유수형성기에 쥐약을 놓아주면 된다.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들쥐 방제용 쥐약은 완제품이므로 밀밥을 놓거나 독미끼를 조제해줄 필요가 없이 그대로 투약하면 된다. 그리고 단한번만 먹어도 치사될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한군데에 1~2숟갈(5g 정도)씩 여러곳에 나누어 놓아 주는 것이 좋다.

바닥에 접시 등을 깔고 투약

들쥐는 대체로 낮에도 활동하므로 해가질 무렵에 투약할 필요없이 하루 중 언제든지 투약해도 무방하다.

쥐약은 습하지 않도록 바닥에 접시, 기왓장, 그릇깨어진 것 같은 넓적한 것을 깔아주고 위에는 굴뚝깨진것 등으로 덮어주고 비로 인해 유실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투약하기 보다 마을단위로 투약날짜를 지정하여 공동 쥐잡기운동을 전개해야 구서효과를 높일수 있다.

☆ 쥐약 취급 및 응급처치

급성쥐약은 독성이 강하지만 항혈액응고제는 대부분이 지효성이므로 과거와 같이 쥐약취급을 꺼려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

○ 주요 쥐약의 특성 비교

체중 250g 쥐 기준

약 제 명	주성분 농 도	독먹이 치사량	2차독성	해 독 제	치사기간	구 분
인화아연	2.5%	0.45 g	거의없다	구토제 및 대증 요법	1 시간	급 성
푸 라 톨*	0.25	0.25	강 하 다	없 음	1 ~ 4 시간	급 성성
RH 787	2.0	0.15	강 하 다	없 음	2 ~ 12시간	급 성
왈 파 린	0.025	5.8	거의없다	비타민 K ₁	3 ~ 15 일	만 성
타 론	0.005	1.4	거의없다	비타민 K ₁	4 ~ 8 일	단섭식만성

* 플루오로 초산소다 제품

아도 된다. 그러나 안전한 쥐약이라도 취급과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투약할 때에는 오용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패물로 덮어두어야 한다. 방제작업 모두 끝난 다음에는 쥐약을 회수하여 폐기처분 하고 남은 약은 잘 밀봉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재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죽은 쥐는 가능한고

무장갑을 끼고 자루나 봉투등에 넣어 소각하거나 땅속 깊숙히 묻어준다. 잘못하여 오용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말고 곧 토하게 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항혈액 응고제 쥐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Vitamin) K₁을 경구 투여하거나 주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

아무튼 수많은 피해와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쥐를 박멸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년 실시되는 집쥐, 들쥐 잡기 운동이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의 참여의식이 필요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활동과 쥐잡기 운동의 문제점, 개선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좀더 진보된 쥐잡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들쥐잡기 운동도 이제 정부의 한부처나 농민들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기관 및 단체, 학교, 매스컴 등의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